

다산포럼



고세훈 고려대 명예교수

대체 영국 전 총리는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여백에 '웨트' (wet) 혹은 '투웨트' (too wet)라고 붉은 펜으로 휘갈 김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우리/그들'의 이분법에 절제했던 그녀의 '진영' 정치는 보수당 바깥뿐 아니라 안쪽을 향해서도 가차 없이 날을 세웠으니, 시장주의를 최대한 옹호하는 쪽을 강경파 (dries), 전통적 온정주의를 지지하는 편을 온건파 (wets)로 가르는 보수당 내부의 관행이 그 시절로부터 비롯되었다. 임기 말 즈음엔 온건파로 '낙인' 찍힌 측근들은 모두 대치를 떠났고-171 내각의 각료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그녀는 유권자 선택 아닌 당내 반발에 의해 현직을 물러난 최초의 영국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실로 대치는 영국의 왕성함 '진영' 정치의 전 범을 표상해가니와, 오늘날에도 그녀는 신념과 소신의 정치를 말할 때 늘 맨 앞자리에 소환되는 정치인이다. 주목할 점은 대체처럼 진영을 고집하던 그녀 측근들처럼 진영을 옮아가는, 영국 정치에서 그 계기는 거의 언제나 이념과 정책에 연결된 선명한 쟁점들, 대체로 시

진영이 부실하면 진영 논리가 판친다

장/국가, 규제/탈규제, 국유화/민영화, 노동 운동, 복지 국가, 법과 질서의 정치 등을 위요(纏繞)한 입장의 공유 내지 갈림이었다는 것이다. 왕왕 진영이 정치인의 이름으로 특정될 때조차, 그것은 인간/세계/역사관에 관련된 거대 담론을 공감하는 정치인-지식인들의 느슨한 연대였고, 거기에 사적 친소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투입할 여지는 애초에 없다. 가령 전후 영국 정치에서 벤(Benn)추종자, 대치주의자, 블레어(Blair) 지지자는 각각 전통적 사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의 노선을 표방하는 진영을 지칭하는 조어다. (한국 실정과 견주는 일은 서로가 민망하니 삼가기로 한다)

타협의 정치 가능한 까닭은

인간 사회가 여러 종류/수준의 갈등들로 얽혀 있는 한, 갈등의 평화적 조정/교정을 본령으로 삼는 정치에서 진영을 가르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은 진영 없으면 정치도 없거나와 무엇보다 정치란 특정의 가치나 정치적 쟁점을 두고 때론 보수/진보, 때론 강/온으로 나누는, 다양한 층위의 진영 간 다툼 아니냐.

정치 선진국들이 이념에 따라 배열된 정당들의 체제를 만들고 당내 민주주의 중심의 정당 조직을 정비해 온 것도 진영의 전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다듬기 위함일 터이다. 정당이란 저마다의 이

념, 가치, 정책, 조직이 유기적으로 직조된 파복(fabric) 같은 것이어서, 당헌에 명시된 이념적 목표에서 중장기 정책 프로그램이 기원하고 후자로부터 다시 단계적 정책 공약이 작성되며, 동시에 그 모든 단계는 당의 엄정한 민주적 조직 원리를 통과하는 것이 상례다. 양보와 타협의 금도(繡度) 정치가 가능한 것은 먼저 정치 진영이 제대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진영이 도덕적 열정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 진영의 내용이 공허해서 정당과 정치인 등 정치 행위자를 구속하는 이념 체계를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거나 부재하다면, 첨예한 개인적 단계적 이해관계의 공학적 셈법과 거기에 맞물린 각종 사적 연줄이 정치 행태를 규정하는, 기회주의적 진영 논리만 판칠 것은 자명하다. 그때 과거의 청산도 미래를 위한 개혁도 안정된 정당성과 설득력을 담보해 낼 수 없을 터인데, 가령 적폐 청산이란 개혁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 같은 것이되, 문제는 청산의 범위와 안목을 따지는 속의 과정은 얼마나 합리적이며 적폐가 물러간 그 자리에 들어설 적격자 가지는지와 그것을 구현할 장치가 준비되었는지가 있다.

정치가 요행과 편의에 기댄 이합집산으로 분주해 온 풍토에서 개혁을 위한 동력이 갑자기 솟아날 리 만무하니, 제어되지 않은 진영 논리가 방치될 때, 권력 자체가 목적이 돼서 공익, 공공성, 공동체 등 진보적 가치를 앞세운 명분들이 하

찮아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마침내 진영마저 거주장스러운 개념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도덕성은 어느새 무관한 것이 돼있기 십상이다.

이합집산 분주한 정치 풍토

단테는 '신곡' 지옥편 첫머리에, 지옥마저 오염될까 두려워 내친 자들이 (말벌들이 들러붙어 만신창이가 된 몸뚱이로) 하염없이 내달리는 것발을 닦아두어 뒤쫓는 장면을 배치했다. 신(神)은 진영 논리에 매여 평생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해 온-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이들을 무엇보다 경멸한다는 경고일 텐데, 단테가 이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로서 죽어서라도 명료한 입장(진영)을 향해 내쳐 달리도록 처분을 내린 것이, 그저 우연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사족 하나. 어쩌면 영국 정치가 술한 우여곡절을 겪고도 그나마 세상이 부러워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온 데는 진영 논리를 거부하며 정치 문화의 자존심을 묵묵히 견인했던 두터운 지식인층이 저변에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어쩌면 한국 정치의 문제는 주역이 나오는 '둔세무민'(遁世無民) 세상을 멀리해도 고민하지 않음)의 강단 있는 지식 계층이 없거나 부실해서, 속내가 뻔한 과시적 말장난으로 공허한 훈수를 일삼거나 느닷없는 가짜담만이 판친다는 데 있을지 모른다.

교단에서



김진우 우산중 교감

방학으로 학교 운동장이 고요하다. 극심한 폭염보다 더 깊은 침묵이다. 학생들이 없는 학교는 그저 건물이고 평평한 땅일 뿐이다. 교정의 수목들은 처져 있고, 학교 텃밭도 지쳐서 끝물이다. 인적이 없는 복도는 길게만 느껴진다. 잠긴 교실에는 덩그러니 놓인 실내화뿐이다. 반복된 경련으로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가고, 팔뚝을 그어 자해하고, 장기 결석으로 유예 직전에 놓인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했으면 좋겠다.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추스를 수 없는 배신감으로 굶은 눈물을 흘렸던 선생님들도 2학기에는 출근길이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아 '수국'과 '책' 몇 권을 준비했다.

광주일보에 실린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의 '나무 생각'을 잘 챙겨본다. 소재는 수목, 풀, 꽃들이지만 인간을 돌아보

수국 그리고 책 한 권

게 하는 맛깔난 글이다. 그냥 지나쳤던 알지 못한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다.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생활의 지혜가 놀랍다. 한 달여 전에 읽은 '더불어 산다는 것'의 주인공은 '수국'이었다.

나는 꽃 중에서 수국을 가장 좋아한다. 이른 아침 열은 안개를 배경으로 꽃 잔치를 벌이고 있는 풍성한 모습이 좋다. 가늘디가는 능개가 내린 날은 촉촉한 윤기로 편안함을 주는 꽃이다. 마련해 놓은 시골집을 온통 수국 천지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칼럼을 읽기 전까지는 수국을 좋아했을 뿐 수국꽃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배려와 역할은 알지 못했다. 토양의 성분이 산성일 때는 청색, 알칼리성일 때는 자홍색으로 변한다는 정도였다. 내가 알고 있던 아름다운 꽃은 진짜 꽃이 아니었다. 진짜 꽃은 너무나 미미해서 별과 나비를 부를 수 없기에, 화려한 가짜 꽃을 만들어 유인한다고 한다. 꽃가루받이가 끝나면 하늘로 향했던 가짜 꽃은 땅 쪽으로 뒤집어진다. 벌에게 보내는 상황 종료의 신호란다. 수고롭게 다시 오지 말라는 배려의 모습이란다. 수국꽃이

떨어지지 않고 누리기리할 때까지 오래 매달려 있는 것도 꽃이 아니라 꽃을 위한 특별한 조직이기 때문이었다.

교무실에서 수국 이야기를 했더니 놀라웠다. 생각보다 수국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많았다. 교정에는 크고 화려한 개량종 수국과 소소한 산수국이 있다. 선생님 몇 분과 함께 수국에게 갔다. 가짜 꽃과 진짜 꽃을 확인하고 싶었다. 우리 학교 땅은 산성인지 엷은 청색이었다. 화려한 윤기로 편안함을 주는 꽃이다. 마련해 놓은 시골집을 온통 수국 천지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칼럼을 읽기 전까지는 수국을 좋아했을 뿐 수국꽃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배려와 역할은 알지 못했다. 토양의 성분이 산성일 때는 청색, 알칼리성일 때는 자홍색으로 변한다는 정도였다. 내가 알고 있던 아름다운 꽃은 진짜 꽃이 아니었다. 진짜 꽃은 너무나 미미해서 별과 나비를 부를 수 없기에, 화려한 가짜 꽃을 만들어 유인한다고 한다. 꽃가루받이가 끝나면 하늘로 향했던 가짜 꽃은 땅 쪽으로 뒤집어진다. 벌에게 보내는 상황 종료의 신호란다. 수고롭게 다시 오지 말라는 배려의 모습이란다. 수국꽃이

얹힌 환자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던 그 진찰실에서 어느 날 자신이 폐암 선고받은 것이다. "내가 꿈꿔왔으며 곧 실현되려던 미래, 그리고 오랜 세월 부단히 노력하며 도달하려 했던 삶의 정점이 사라지고 말았다"며 탄식한다.

자신도 환자가기에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신경외과의사. 이 모순된 상황에서 불꽃같이 타오른 서른여섯의 짧은 생애가 간결한 문장에 담겨 있다. 인생의 길이는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만 길이와 폭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른 책이다. 초가 다 타고 마지막 심지가 스러지면서 불꽃을 거두는 것처럼 표현된 칼라니티의 죽음은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하게 보여주었다. 'O형 혈액처럼 누구에게나 생명의 피를 나누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책으로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는 서평도 있었다.

이 책을 몇 권 주문했다. 학교 도서관과 학생과에 비치할 생각이다. 여러 사연으로 힘들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이나, 녹록치 않은 교단에서 심신이 지친 선생님에게 꼭 한번 읽기를 바라면서.

기고



양은주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100세사회 슈퍼라이프코치양성사업단장

한 달 전에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 다녀왔다. 제주도 크기의 13배 정도 되는 이 섬은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빌게이츠나 할리우드 스타들도 휴가를 즐기는 곳이라고 한다. 최근 TV방송에서 사르데냐 섬을 블루존이라는 장수지역으로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필자는 운 좋게도 우리 대학 학생들과 함께 그곳에 다녀왔다.

블루존이라는 명칭은 이탈리아 사사리 대학의 페스코수(Gianni Pes)가 사르데냐 섬에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많음을 유럽에 발표하면서, 지도에 푸른색으로 장수 지역을 표시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전 세계에 100세가 넘는 노인은 얼마나 될까? 2015년 UN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백세인은 43만 명, 그중 우리나라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누리려면

에는 3159명, 백세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총 인구 대비 백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라고 한다.

이탈리아 본토에 비해 백세인이 6배나 많은 사르데냐 섬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전 세계 다른 장수 지역에 비해 남자 노인이 많다는 점이다. 장수 지역 백세인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4~7배 많으나 사르데냐 섬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고 한다. 남녀 노인 모두 95세까지도 비교적 기능적 상태가 양호하고 우울증이나 치매가 적으며, 남자 노인은 팔십대까지 산에 오르며 염소를 키우고, 여자 노인보다 장애 비율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사르데냐 섬의 모든 지역에 백세인이 많은 것은 아니다. 사르데냐 섬에서 블루존으로 불리는 곳은 중부 동쪽의 산악지역인 바르바치아 지역이다. 페스코수는 사르데냐 섬에서 남자 노인이 장수하고 동부 산악지역, 특히 지역적으로 고립돼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의 노인이 장수하는 이유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백세인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을 조사하고 1000명이 넘는 백세인의 혈액을 모아 유전자를 분석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유전적으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생활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르데냐 섬의 산악 지역은 아직도 가축이나 전직업들이 모여살면서 필요한 식품을 자급자족하거나 물물교환을 통해 나누어 먹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정제하지 않은 밀, 보리 등을 주식으로 발효빵을 만들어 먹고 집 근처에서 재배한 신선한 채소, 감자, 콩, 올리브유와 직접 키운 염소의 우유와 치즈를 먹고, 한 달에 1~2회 고기를 먹으며, 외인을 마시며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한다고 한다. 염소를 키우기 위해 매일 10km 이상 산을 오르내리고,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일이 21세기 이탈리아에서 가능한가? 정말 스트레스가 없는 삶일까? 아찔한 비탈길을 두 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올라간 사르데냐 산악 지역에는 식품을 파는 마트도 없고, 요양 시설이나 안료원도 없었다.

우리나라 장수 지역은 어디일까?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광역시도 중에서는 제주도, 시군 중에서는 과산시가 백세인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역시 섬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데 최근에

는 서울의 서초구나 강남구가 장수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사회 경제 발달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곳이 장수 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백세인이 응답한 장수 비결은 뭘까? 절제된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며 그 다음으로 규칙적 생활, 낙천적 성격, 유전적 요인 등이라고 응답했다. 장수 지역의 백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하루 세끼 식사, 소식이지만 균형 있는 식사, 된장-채소-버섯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장수와 관련성이 높다고 했다.

필자가 만난 사르데냐의 98세 할머니는 건강하게 사는 비결로 '핸드폰을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것보다는 의학적 방법이나 특별한 식품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삶, 골고루 먹되 지나치지 않은 식사, 육심 내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의 건강 장수를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社說

광주형 일자리 성공 노동계 협조에 달려 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좀처럼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8월 중 현대차 등과 합작 완성차 공장(법인) 설립 투자 협약을 가진 계획이지만 생각보다 진전이 더디다. 윤창현 전 시장 때 입안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광주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작법인 직원 평균 임금을 기존 완성차업체 절반 수준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 현대차 등의 투자를 유치해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임금 하향 평준화를 염려한 현대자동차 노조 등은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역시 '재벌에 대한 특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의 협약 체결을 8월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동계를 협상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선 6기에 구축된 노사민정에서 노동계가 이탈하는 등 반발이 계

속되면서 '자동차 업계 임금 절반+교육·의료 등 복지 제공'을 통해 일자리 1만 5000개를 창출한다는 시의 구상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마침 한국노총이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하고 협상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내부 협의를 거쳐 협상에 한국노총을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단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정된 협상 내용을 미리 전달해 의견을 받고 협상이 끝나면 이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는 노동계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 광주시는 노동계와 다각도로 접촉함으로써 대화와 설득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현대차와의 협상을 이달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정부 부처로 이어져야

여야가 결국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별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소수 야당들의 압박에도 양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버티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별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주례 회동에서 특별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으며 16일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특별비는 그동안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 지급됐으나 정확한 지급 규모나 인원이 공개된 적은 없다. 올해 예산안에는 62억 원가량 책정됐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에게는 매달 총 1억 원, 18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각각 매달 6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할 때 영

수증을 생략할 수 있어 '논돈 돈'이나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야의 결정은 비록 국민 여론의 압박에 백기 투항한 것이나 신대발했지만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또 하나의 부정한 기득권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의 특별비에 쏠리고 있다. 국회 특별비는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비하면 약소하기 때문이다.

행정 부처들의 경우 지난 10년간 특별비로 4조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게 사실상 '수당'처럼 지급돼 온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국정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비 정외대 상납' 논란에서 보듯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제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의 특별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취지에서 벗어나는 특별비는 모두 폐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별을 보면 즐거우나요?" 종종 듣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의 바탕에는 한밤중 밖에 나가 별을 보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라고 답할 수밖에.

우리는 가끔씩 밤하늘에서 벌어지는 천문 현상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다. 어쩌다 알았다 하더라도 하늘이 도와 주지 않으면 볼 수 없게 된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다. 11일 일출 때는 부분일식이 있었고, 12일 밤에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가 쏟아졌다. 부분일식의 경우 달이 거의 지평선 가까이 다다를 즈음에 해의 일부를 가리는 일식이 일어났기에, 서해에 가깝게 있지 않은 이상 보기 힘들었다. 유성우가 쏟아진 12일엔 북상하는 14호 태풍 '야기' 영향으로 밤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였다. 자정을 넘기며 구름이 걷히자 이따금씩 밝은 유성이 하늘을 갈랐다. 페르세우스 유성우(流星雨)는 120년 주기로 태양에 접근하는 '스위프트-터틀'혜성이 궤도상에 흩뿌린 잔해를 지구가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날 평소보다 많은 유성을 볼 수 있었다.

요즘은 많은 행성을 볼 수 있는 시기가

기도 하다. 해가 진 후 금성, 목성, 토성, 화성이 잇따라 떠오른다. 광혜(光害: 네온사인 등 불빛 때문에 공중의 먼지층이 희뿌연게 되어 기상 관측에 방해가 되는 것)가 있는 도심에서는 밤하늘에서 행성을 찾기가 오히려 쉽다. 그보다 밝은 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밤엔 초승달이 금성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심에서 벗어나면 깜깜한 시골 하늘에서 은하수를 만날 수도 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밤하늘은 안드로메다와 페가수스 등 어느새 가을철 별자리를 바꾸었다. 별이나 행성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굳이 천체망원경과 같은 장비가 없어도 두 눈으로도 박찬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시민천문대를 찾아 태를 두른 토성을 보여 주거나, 밤하늘을 장식한 신화 속 인물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지구 밖 우주를 상상하다 보면 누구나 '왜 별을 보느냐?'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2-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